

대평면-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대평면 우수지 환경정화 활동'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6.04 08:02



대평면 우수지 환경정화 활동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 대평면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대평면 소재 진양호 상류 우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환경정화 활동은 대평면 자율방재단 등 대평면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진양호 상수원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영농폐기물 및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대평면 딸기특화단지 우수지 인근은 청동기 박물관과 자전거 도로가 있고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진주시민 및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불법투기 쓰레기와 우수기 시 유입된 쓰레기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대평면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주변경관 개선과 진양호상수원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합동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100만원 상당의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제공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기반시설과 진양호 상수원 환경정비 역할을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미경 대평면장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청정대평 이미지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윤 기자 기자